

## 3/2(수) 스가랴 묵상 19

### 스가랴 10:1-12

**말씀 읽기와 묵상** - 오늘 본문을 읽거나 들으시고 먼저 말씀을 3분 정도 침묵 가운데 개인적으로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스가랴 10장의 말씀은 하나님은 목자로서 그리고 그의 백성들은 양떼들로 불리우며 그들에게 화평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이 멸망한 이후에 각국의 포로로 흩어졌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귀환하는 모습이 그려지고 있습니다.

#### 하나님의 심판

오늘 본문 1-3절상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생활에서 돌아온 이후에도 우상숭배에 빠져 죄 가운데 헤매이고 유리 방황하는 모습을 언급하시면서 노를 발하시게 됩니다(1-3절상, “**봄비가 올 때에 여호와 곧 구름을 일게 하시는 여호와께 비를 구하라 무리에게 소낙비를 내려서 밭의 채소를 각 사람에게 주시리라 드라빔들은 허탄한 것을 말하며 복술자는 진실하지 않은 것을 보고 거짓 꿈을 말한즉 그 위로가 헛되므로 백성들이 양 같이 유리하며 목자가 없으므로 곤고를 당하나니 내가 목자들에게 노를 발하며 내가 숫염소들을 벌하리라.**”). 스가랴 선지자는 1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농사를 위해서 하나님께 비를 구하라고 선포하지만 백성들은 하나님이 아니라 우상에게 비를 구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자 하나님의 분노는 누구를 향하고 계십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라 그들의 목자들에게 화를 발하시고 또 숫염소들을 벌하시겠다고 말씀합니다. 먼저, 목자들은 누구를 말하는 것입니까? 이들은 총독 스룹바벨과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이후에 나타나서 이스라엘을 다스린 다음 세대의 지도자들을 말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 세대의 지도자들은 백성들을 올바른 길로 인도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그들도 우상 숭배에 앞장 섰던 것입니다. 그리고 숫염소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백성의 선두 무리를 비유적으로 의미합니다. 이들 모두에게 하나님은 벌하시겠다고 말씀합니다. 예수님도 우리가 다른 사람을 실족하게 하는 일에 대해서 엄중한 경고를 하고 계십니다(막 9:42, “**또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들 중 하나라도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이 그 목에 매여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리라.**”). 또 야고보는 선생된 자가 더 큰 심판을 받게 될 것을 알고 주의할 것을 신신당부하기도 했습니다(약 3:1-2,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 몸도 굴레 씌우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맡기신 책임을 명예로 착각해서는 안되며 두렵고 떨림으로 겸손히 주의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 하나님의 열심

비록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목자로서 바르게 순종하지 못했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의 언약을 지키시기 위해 하나님 자신이 그들의 목자가 되어 주실 것을 말씀합니다(3절하, “**만군의 여호와가 그 무리 곧 유다 족속을 돌보아 그들을 전쟁의 준마와 같게 하리니**”). 그리고 속10장 3절하 - 12절의 내용은 출애굽의 이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4절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취하실 네 가지 구체적인 것을 묘사합니다(4절, “**모퉁잇돌이 그에게서, 말뚝이 그에게서, 싸우는 활이 그에게서, 권세 잡은 자가 다 일제히 그에게서 나와서**”). 학자들은 이 네 가지 표현을 가리켜 모두 메시아를 암시하는 것으로 해석합니다. 그리고 5-12절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강하게 하시고 그들을 회복시킬 것을 말씀합니다. 6절에서는 ‘유다 족속과 요셉 족속’이 모두 등장하는데 이들은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의 백성을 가리키는 것으로 이들이 모두 흩어진 곳에서 다시 고국으로 돌아오게 되리라는 것입니다(6절, “**내가 유다 족속을 견고하게**

하며 요셉 족속을 구원할지라 내가 그들을 긍휼히 여김으로 그들이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은 내가 내버린 일이 없었음 같이 되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라 내가 그들에게 들으리라.”). 그리고 하나님은 이들의 죄를 모두 사해 주시고 그들을 이전처럼 번성하게 하실 것입니다. 과거 모세와 여호수아에게 약속하셨던 지역까지 그들이 큰 영토를 차지할 것을 말씀합니다. 이는 유다 백성들 가운데 이루어질 2차 그리고 3차 포로 귀환 뿐만 아니라 애굽과 앗수르 등 전세계에 흩어진 백성들을 다시 돌아오게 하시겠다는 약속입니다(10절). 이러한 회복의 이유는 첫째로 6절의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신 결과입니다. 둘째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주권적으로 구속하셨기 때문입니다(8절, “내가 그들을 향하여 휘파람을 불어 그들을 모을 것은 내가 그들을 구속하였음이라 그들이 전에 번성하던 것 같이 번성하리라.”). 마지막 말씀인 11-12절은 스가라서 10장의 전체적인 요약으로서 하나님은 이 세상의 모든 강대국이 가진 권세를 제압하시고 한편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의 백성을 견고하게 하실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 백성의 궁극적인 승리를 말씀합니다.

오늘 말씀을 바탕으로 두 가지 사실을 적용하기 원합니다. 첫째로 스가라가 선포한 메시아의 예언은 우리에게 이미 이루어진 예언이자 동시에 아직은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은 예언의 말씀입니다. 특히, 성경이 말하는 평화와 승리의 완성은 미래의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은 전쟁이 있고 불완전한 세상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불완전한 종말론적 긴장 가운데 살아갈 수 밖에 없습니다. 이는 우리로 하여금 이 땅에서 문자적인 승리주의에 빠져서는 살아서는 안되는 것입니다. 두번째로 오늘 말씀을 묵상한 대로 하나님은 정의롭고 공의로운 분이시지만 동시에 크신 사랑을 가지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본심은 고통과 근심이 아니라 인자와 긍휼이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결심과 약속은 오래 가지 못하고 신실하지 못할 때가 많지만 하나님은 언제나 동일하신 사랑과 신실하심으로 우리를 오래 참으시는 분이십니다. 또, 우리가 회개할 때 주님은 우리의 죄를 기억하지 않으실 정도로 완전히 용서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주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부족하더라도 다시 미래에 향한 새 소망을 품을 수 있는 것은 우리 주님이 궁극적인 승리자이시고 또 하나님의 열심이 우리를 도우시고 붙잡아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크고 신실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믿음을 굳게 붙잡는 것입니다. 이 아침에도 우리에게 크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주시도록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적용 - 오늘 묵상을 통해 성령님께서 내게 깨닫게 하시고 다짐하도록 해주시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구체적으로 적용하고 기도하겠습니다.**

#### **오늘의 다짐과 기도제목**

- 1. 적용의 기도:** 오늘 묵상을 통해 내게 주시는 말씀을 개인의 신앙과 삶에 적용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기도하자.
- 2. 우크라이나를 위한 기도:** 우크라이나 땅에 하루 속히 평화가 임하게 하시고 전쟁이 멈추게 하여 주소서. 그곳에 계신 하나님의 백성들과 선교지를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 3. 교회를 위한 기도:** 우리 교회에 속한 구역을 위해서 함께 기도합니다. 오늘은 브랜포드 2구역을 위해서 중보합니다.
- 4. 지역 선교를 위한 기도:** KGMLF를 위해서 함께 기도합니다.